

닌나지 절의 꽃 축제

교토 사람들은 수 세기에 걸쳐 계절별 꽃과 나무들을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. 봄이 되면 닌나지 절 경내는 가장 화려해집니다. 오무로자쿠라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큰 꽃송이가 특징으로 그 꽃이 피는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3월 중순부터 5월 초에 걸쳐 닌나지 절의 꽃 축제가 개최됩니다. 여러 품종의 오무로자쿠라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일부러 낮은 키를 유지하기 위해 단단한 토양에 심어져 있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품종은 하얗고 구름 같은 꽃을 피우는 오무로아리아케입니다. 오무로자쿠라는 꽃놀이철에 닌나지 절 경내를 일반에 공개한 에도 시대(1603~1868년)부터 서민의 인기를 모았으며, 오늘날에도 매년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. 보통 4월 중순에 만개하며 그 주변에 핀 진달래의 분홍빛과 연보라빛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. 그리고 이 꽃 축제가 종반에 이르면 주변 배경은 단풍나무의 선명한 녹색으로 변화합니다. 꽃 축제 기간에는 경내에 입장할 때 500엔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.